

“나보다 힘들게 사는 이웃 보살피는 사회되길”

●박헌조 광주 동구 세원한약방 대표

생살에 물 말아 먹는 어려운 가정 접한 뒤 이웃돕기 나서 한부모·조손가정 아이들에 40년 가까이 장학금 전달도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봉사라고 배웠습니다.”

박헌조(69·사진) 광주 동구 세원한약방 대표는 17일 봉사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어려서부터 부친이 어려운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기 위해 늘 쌀독을 채우는 모습을 봤고, 부친이 임버릇처럼 하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남을

돕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이후 한약방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지난 1978년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웃돕기에 나섰다.

지인의 부탁으로 박 대표는 지적장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어르신 댁에 감기약을 전달하러 갔다가 기름 살 돈이 없어 조리를 하지 못해 생살에 물 말아 먹는 상황을 목격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분들을 돕자”고 결심했다.

그 뒤로 20여년간 박 대표는 해당 모자(母子)



에게 생활비·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박 대표는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일에도 관심이 많아 1985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동부경찰서와 연계해 계림1·2동, 산수1·2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정 아이들 1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처음엔 직접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었는데 좀 더 의미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동부경찰서 서장께 대리 전달을 부탁드렸다. 다행히 흔쾌히 수락해줬고, 이후로 계속 함께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을 통해 종종 아이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웃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기부·봉사 등을 지속할 계획이나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동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부회장, 동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정기자

김대현 순천대 교수

의약품 제조 ‘우수 R&D기업 대상’



순천대학교는 “최근 김대현(사진) 의생명과학과 교수의 창업기업 크리포퓨가 ‘2024 제10회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의약품 제조 부문 ‘우수 R&D기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은 산업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기업’,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 ‘고객 지향형 기업’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크리포퓨는 단백질 기반 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정제공정 관련 초격차 요소기술을 개발 중인 벤처기업으로, 최근 ▲초저비용 ▲초고속 ▲초고순도·고효율 ▲초간편 ▲고확장성 등을 두루 갖춘 레진-컬럼-프리(free)형 혁신적 초격차 정제 플랫폼 ‘MIDAS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대현 교수는 “크리포퓨가 개발한 차세대 정제 플랫폼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기자



포스코, 봉사여행 ‘볼런투어’ 호응

포스코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는 봉사여행 ‘볼런투어’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볼런투어는 Volunteering과 Tour를 결합한 단어로, 복지기관에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포스코만의 봉사여행 프로그램이다.

포스코 임직원 봉사자는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지역 명소를 탐방하며 기억에 남는 하루를 선물한다.

볼런투어는 격주 4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일인 금요일에 진행해 봉사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봉사여행으로 가고 싶은 장소, 시간, 활동 내용을 접수 받았다. 지난 12일 포항, 13일 서울에 이어 오는 28일 광양지역 탐방이 예정돼 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체육활동, 문화재 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연계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양홍렬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광주광역시치매센터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옥·사진 오른쪽)는 안전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치매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치매센터(센터장 김병채)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연계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특히

건보공단은 고위험·취약세대를 위한 자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정옥 본부장은 “해당 협약으로 치매환자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양 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치매예방, 치매안심 1등 광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신규 종사자 필수교육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18일까지 2024 지역아동센터 신규종사자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17일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에 따르면 총 4일간 이뤄지는 필수교육은 신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1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내용은 인사노무, 희망이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024 지역아동

센터 사업 안내, 보조금 사용 기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관리 및 지원 등이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은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애쓰시는 신규 시설장과 신규 생활복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신 강사님, 각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이 지역아동센터 신규종사자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목포성심요양병원, 죽교동 어르신에 짜장면 나눔

목포성심요양병원은 “최근 목포시 죽교동통장상조회 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성심요양병원은 푸드트럭에서 바로 짜장면을 만들어 통장들과 함께 경로당 3개소에 배달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죽교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목포성심요양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목포시 경로당에 방문해 짜장면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경로당을 순회할 계획이다.

김일섭 죽교동장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죽교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담양군 관광과·장성군 보건정책과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은 “최근 관광과와 장성 보건정책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기부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은영 담양군 관광과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성군 보건정책과를 방문, 지역 기쁨품 교환을

했으며 2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상호 기부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상호 기부에 동참해 준 장성군 보건정책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산학협동연구원 임시총회·산학협동포럼 개최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 이사장 김보근·원장 양승학)은 17일 오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A홀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시총회 및 제25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11대 감사 신규선임(안)과 제9대 이사 신규 선임(안)이 통과됐다.

포럼에서는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대전환시대, 세계질서의 재편과 과학기술혁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현기기자

광주관광공사-순창발효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협약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사진 왼쪽)는 지난 16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광정책 및 사업관련 정보 상호 공유 ▲상호기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시행 ▲상호협력사업 및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 및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광주관광공사는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광주는 서남권 관광허브도시로서 인근 시 군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순창군은 광주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



며, 이번 업무협약이 형식이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도시 광주 비전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관광공사는 최근 코레일광주본부, 전남관광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역사이팅 광주’ 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 /기수희기자